

〈제8차 세계 병자의 날 기념 행사〉

인류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나약과 원죄의 불어난 고통의 강

김창훈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사람은 인간 본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적, 정서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건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예를 들어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의약품과 갈수록 첨단화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생명의 연장과 질적 향상, 고통의 경감, 개인의 잠재력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 사회적인 성과도 있었다. 치료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 권리가 "병자 권리 헌장"에 법률적으로 명기되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의약품과 질적으로 우수해진 의료 시설 그리고 최근의 수준 높은 자원 활동 덕분에 간호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제이천년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를 압박하는 무거운 고통의 짐을 덜고자 인류가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난 세기 개인과 국가의 잘못에서 온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원죄의 상처로 불어난 고통의 강이 더욱 더 깊어진 것 같다. 나는 유험 참사를 빚었던 금세기의 전쟁들을 생각하면서 마약, 에이즈, 대도시의 오염과 환경 파괴에서 오는 질병 등 사회 안에 만연한 여러 가지 병폐들, 크고 작은 범죄의 증가 그리고 안락사에 관한 제안들을 생각해 본다.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병원 침대, 고통받는 난민과 고아들, 사회악과 빈곤의 희생자들이 떠오른다.

교회는 그 동안 모든 시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과 맞서 싸우며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류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고통의 의미와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구원의 풍요를 인류에게 나누고자 노력하였다.

역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들에 대한 기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열의에 불타 사회 복지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지난 이천년을 선행으로 빛나게 하였던 위대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교회 교부들과 남녀 수도회 창립자들뿐만 아니라 침묵과 겸손으로 이웃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교회는 사랑의 복음정신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병원이나 보건소, 자원 봉사기구 등을 통하여 건강 증진과 병자 간호에 이바지하며 그들 고통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거나 없거나 개의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참여는 장려되어야 하고 보건 분야의 불평등과 모순을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발전과 함께 인류의 불평등

수세기에 걸쳐서 보건의 전반적인 모습에는 밝은 면과 그늘진 모습이 공존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일차진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 굶주림으로 식량도 없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와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인격과 불가침의 존엄성에 초점을 둔 참된 진보를 가져 왔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유전학 분야의 성과가 용인될 수 없는 선택과 몰상식한 조작과 진정한 발전과 반대되는 이익 추구가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생명을 연장하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출산하고 이미 잉태된 생명의 탄생을 허락하지 않고 더 이상 쓸모 없다고 판단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올바로 인식하지만 때로는 육체 숭배와 육체의 향락주의적 추구에 몰두하는 동시에 생명을 단순한 소비로 여겨 장애인과 노인, 말기 환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낳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역설적인 상황은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술 진보 추구의 논리,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 가치의 논리 사이에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회개와 쇠신의 요청

새로운 천년기에는 고통과 보건의 영역에서도 기억의 정화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권유를 받아들일 이도록 요청받고 있다.

회개와 쇠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 천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서 육신을 취하셨던 구세주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신

적 생명의 샘으로서 인류에게 계속해서 내어 준다. (제삼천년기, 55항)

강생의 신비는 생명을 책임 있게 돌보고 사용해야 할 하느님의 선물임을 나타낸다. 건강은 가치 서열에 있어서 최고선에 이어서 둘째 선으로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선익을 위하여 증진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에게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구원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간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사물과 건강과 은총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또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과 건강과 온 몸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그분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즐거움만 찾지 않고 묵묵하게 하느님과 대화하며 하느님께 순종하신 삶이 인간 구원의 길이였음을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의 육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병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없애려는 노력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고통의 깊은 의미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에 협력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회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얼굴을 관상하도록 초대한다. 교회는 창립자이신 하느님을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재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사랑과 위로를 밝혀 주고 전해 왔다. 이런 행위는 보건의료인의 숙련되고 너그러운 봉사뿐만 아니라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신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투신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협력해야 하는 하느님의 지상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 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마태10,1.7-8)

▶ 봉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실천이다.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봉사는 성찬례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며, 성찬례 안에서 그 원천뿐만 아니라 규범까지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떼어 주고” “발을 씻어 주라”하신 것은 봉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나타낸다.

당신 자신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보여 주신 모범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촉구한다. 이는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무관심을 버리고 이웃과 그의 고통에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고 훈련시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구원

에 이르는 고통 29항). 이러한 인도적인 관심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에 투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는 병자들에게서 가난하고 고통받으셨던 창립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병자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 있게 치유를 받게 도와주는 것이다.

치유는 병이 나아서 병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동기를 마련한다. 직업으로든 자원 봉사로든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유심하게 바라볼 것을 충심으로 권유한다. 이 봉사는 결정적인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당신의 가르침과 활동으로 끊임없이 건강을 증진시키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불의와 죄악에 맞서 싸우셨고 그 이면의 함축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시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는 모든 이가 충만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껏 도와야 한다.

생명의 질과 건강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의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1) 생명 수호의 의무: 생명 윤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직무에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 2) 인간에게 합당한 보건 증진의 의무가 있다. 모든

가치를 보진 건강의 가치에 종속시키려는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단순히 활력과 육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양호한 상태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반대한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영적, 사회적 차원을 무시하고 참된 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의 건강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관은 교회와 사회에 합당한 환경을 이루도록 요구한다.

인간의 건강은 생명의 속성이고 이웃 봉사를 위한 자원이며 구원의 열린 문이다.

▶ 결론

주님의 은총의 해 “죄와 그에 따르는 벌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해, 상반된 집단 사이의 화해의 해, 다양한 회개와 성사의 외적인 참회의 해”인 이 회년에 사제와 남녀 평신도,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건강의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용감하게 대처하도록 권고한다. 이 회년이 병자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일치의 추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병든 형제 자매들의 삶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의 여정에 십자가 밑에서 당신 아드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던 동정 성모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